

##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8, 이사야. 14-16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세션, 이사야서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자유롭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생명 그 자체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성령님의 임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이 놀라운 창조물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경이로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 충실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 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5년 동안 이곳에서 성취한 성과에 대해 켄터키 주의 이 작은 마을에 감사드립니다. Asbury University와 Asbury Seminary에 감사드립니다. Francis Asbury Society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마을의 다른 모든 조직에 감사드립니다. 가서 전도 자료, 잃어버린 세상에 다가가는 다른 사람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와서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비록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당신이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여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음, 비와 어둠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4주 동안 실제로 만날 예정입니다.

2주간의 휴가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4주가 감사하다. 우리는 열방에 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가 신뢰에 대한 교훈이라고 부를 수 있는 13장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전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좋아, 교과서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실로 돌아가서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6장이 책 전체의 모델, 즉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자아에 대한 비전, 정화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자아에 대한 비전이 여기 7장부터 39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열쇠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국가들을 믿지 마십시오. 인류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13장과 14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 일종의 인간의 영광과 권세와 광휘의 전체적인 상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들에서 바벨론이 땅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시대에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바벨론을 언급할 때 실제로는 로마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이 이사야의 인도를 따랐을 뿐이며 바벨론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밤 14장 24절에서 우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유다가 직면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의 첫 번째 진술에서 언급한 것처럼 앗시리아, 블레셋, 모압, 시리아, 이스라엘 국가들은 모두 14장, 24장부터 17장, 11장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소 넓은 각도에 있습니다. 인류는 그 모든 영광과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광각. 이제 우리는 더 좁은 각도로 가서 유다를 위협했던 특정 국가들과 유다가 그들을 구원할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14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뭔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13장 1절로 돌아가십시오. 그 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본 사람 있나요? 무엇? 오라클. 다른 번역은 무엇입니까? 예언.

메시지. 부담. 예.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부담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28절을 보십시오. 누군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다시 오라클이 있거나 메시지가 있거나 부담이 있거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4장, 2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없지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빌론을 대표자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이사야 시대에 유다를 위협했던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상징으로 바벨론을 넓은 각도에서 좁은 각도로, 아시리아를 그들을 위협하는 메소포타미아 세력의 현재 현실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4, 26, 2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에 주목하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는 목적이 있다, 계획이다란 무엇입니까? 예. 이 짧은 부분에서 목적을 두고 계획한다는 두 단어가 5번, 6번 반복됩니다. 자, 거기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앗수르라는 괴물 제국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의 손에 있습니다.

8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음모라고 부르는 것을 음모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만약 당신이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나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없지만 일반적인 진리는 여전히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세상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처벌하기 위해 세계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시리아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저녁 뉴스를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을 완전히 구부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머.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뜻한 대로 그대로 서리라. 25절.

내가 내 땅에서 앗수르 사람을 꺾고 내 산에서 그를 발로 짓밟을 것이다.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며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두 개의 요새를 제외하고 그 나라의 모든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라기스는 해안 지역과 예루살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185,000명을 쳤더라.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그들은 모두 시체였다. 그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음 흠. 나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앗수르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목적하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온 땅에 대하여 목적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뺨은 손. 그리고 27장에서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겠느냐? 그분의 손이 퍼졌는데 누가 그것을 되돌리겠습니까?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면.

거기로 돌아가자. 10장 4절은 아홉 시, 여덟 시에 시작된 시의 끝입니다. 4개의 스탠자.

각 연은 10절 중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4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노가 쉬지 않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먹이 높이 들렸습니다. 앗수르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결국 앗수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하나님의 주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염려할 일이거든 앗수르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염려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이 그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면 당신은 벽돌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을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게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관해 읽어보겠습니다. 소매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 그 주먹이 우리에게 닿을지, 적에게 닿을지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사야 5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뺨은 하나님의 강력한 팔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바빌론을 상징적으로 다루는 것은 앗시리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진술입니다. 좋아, 계속 밀어붙여보자.

이제 우리는 특정 국가를 향한 메시지인 신탁에 이르렀습니다. 강력한 제국과 가까운 이웃. 블레셋은 유다 남서쪽 해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다가 있어요. 블레셋은 여기 해안에 있습니다. 5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섯 성읍은 블레셋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 사이의 산간 지방을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다는 여기 능선에 있어요.

블레셋은 여기 해안에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저지대라고 불리는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해안을 향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능선을 향해 끊임없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즉 저지대는 역사 전반에 걸쳐 그들 사이의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연대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연대라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하스는 716년경에 죽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틀렸습니다. 메모에는 516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하스가 716년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739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은 732년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722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16년으로 내려갑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블레셋아 너희는 다 너희를 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지팡이에서 독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풀을 뜯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며

그러나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요, 네 남은 자도 죽으리라. 아마도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 다행이다. 우리의 대적, 유대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큰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기회는 아닙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블레셋과 유다의 서로 다른 미래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29, 30, 31장에 따르면 블레셋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기근, 파괴,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따르면 유다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피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중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얻으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압에 관해 몇 분 후에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멸망이 올지라도 남은 것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한 요점입니다. 멸망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파괴가 있을까요? 예.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 아니.

그리고 확실히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왜 블레셋 사람들을 신뢰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왜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동맹을 얻매는 것을 피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그의 본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라들을 믿지 말라고 거듭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 분명히, 프랑스와의 동맹은 미국 혁명의 생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좋아요.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다른 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것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국가들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나라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들은 그 나라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나라를 따라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내 생각엔 어떤 국가도 따르지 않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국가의 일부라면. 아, 유다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왕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곳으로 피난처를 삼으시리라.

좋아요. 민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않는 왕들과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 중 일부는 척하지 않고, 일부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인간 왕들, 심지어 가장 신실한 인간 왕들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신뢰한다면 그들 역시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가리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권력을 축적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요점입니다. 내민 손은 심판을 위해 내밀 수도 있고, 구원을 위해 내밀 수도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응, 응, 확실히, 확실히.

좋습니다. 이제 다음 오라클로 넘어갑시다. 사해를 건너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 있고, 사해가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과 유다는 늘 불확실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Ruth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며 유다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모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그들 사이에 일종의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지역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정말 거의 모두 소금 평원이고, 실제 사해는 바로 이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모두 요르단에서 너무 많은 물을 빼냈기 때문에 사해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에서 사해 역시 우리의 오대호처럼 오르락내리락했고, 유다에서 모압까지 가는 것이 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북쪽 끝까지 이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압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크고 큰 논의가 있습니다.

이곳은 르우벤 지파인 르우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곳은 아래 모압의 고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이사야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도시는 여기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꽤 일찍부터 르우벤 지파를 몰아낸 것 같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 그런 모든 것.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 이 모든 지역을 모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연합왕국 시대,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의 시대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다가 어느 정도 의지하고 싶어했던 사해 동쪽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유다는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곳 유대 지역으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에돔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증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미약한 관계.

때로는 적대감으로 때로는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5, 1부터 9까지, 이 시의 지배적인 어조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나요? 슬픔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이 통곡합니다. 3절에 보면 모두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5절, 마음이 부르짖습니다. 5절의 끝은 멸망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8절. 그리고 또 주석을 쓰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토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된 도시입니다. 마치 북쪽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난민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인들이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격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가오는 앓수르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2차 세계 대전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에서 파리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치가 승리하고 프랑스가 항복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길에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유모차, 옷장, 주방 테이블, 오토바이, 자동차. 난민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모든 물건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겁에 질려 다가오는 나치 무리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모압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저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은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느니라.

그리고 그 시냇물은 여기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축적된 작은 조각들을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말합니다. 두본의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Dubon은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두본에 사자를 더 많이 보내어 모압 사람이 그 땅에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남쪽으로 도망치려는 남은 자들이라도 북쪽에서 오는 사자에게 삼켜지리라.

이제 나는 그것이 내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에 걸쳐 획득한 것들을 살펴보고 아내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듯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획득, 획득에 소비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은 많은 일들을 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점에서.

유럽의 역사를 알고 계시다면 1615년에서 1645년 사이는 본질적으로 중부 유럽에서 30년 동안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독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615년에 1,200만 명으로 시작했고, 1645년에는 600만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구, 모든 인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럼 오스왈드, 당신은 우리 모두가 수도사와 수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뇨,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가볍게 잡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일 뿐입니다. 그냥 물건. 그래서 나는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획득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십시오.

실라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의 산에 이르느니라. 음, 이번에도 Sila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페트라(Petra)라는 도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지역의 험곡 벽에 모든 집과 모든 것이 잘려져 있는 바위 도시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석인 실라에서 이 땅의 통치자에게 보내라. 글썄요, 여기서 멈추면 모압의 통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딸 시온의 산으로. 아르논 나루터에 있는 모압의 딸들은 날아가는 새 같으며 흩어진 보금자리 같으니라.

아르논 강은 바로 이곳을 통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이 사람들은 당신의 통치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시온 산의 통치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3, 4, 5절. 조언을 주십시오. 정의를 부여하십시오. 정오가 되면 네 그늘을 밤처럼 만들어라.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십시오. 도망자를 밝히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로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

파괴자로부터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십시오. 압제자가 더 이상 없고 파멸이 그쳤을 때. 그리고 발로 짓밟는 사람은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다의 피난처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로 향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5절. 그 때에 보좌가 견고히 서리라. 왕.

그리고 그것은 확립될 것입니다... 여기 내 버전은 확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 그게 다음 단어지, 그렇지? 왕좌는 무엇에 세워질 것인가? 자비? 사랑의 친절?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헤세드.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소식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번역할 수 없는 영어 단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포착하는 단일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 자비, 친절, 은혜, 동정심, 충성,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친절.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특히 자격이 없을 때, 열등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에만 있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어휘는 다른 셈족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약 250번 나옵니다. 그 중 약 4분의 3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종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히브리 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병렬성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동의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구문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음, 헤세드의 동의어는 여기서 얻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충실. 이는 진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디어로서의 진실이 아닙니다.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이 왕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왕은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져올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다음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미쉬파트을 가져올 것이다. 이 단어는 종종 정의 또는 심판으로 번역됩니다.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불의의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가 아닌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법적 형평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그분은 틀림없이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와.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디서 할 것인가? 5절.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그것을 할 것인가? 다윗의 장막에서.

그리고 그것은 흥미 롭습니다.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궁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잘못된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 성막? 네,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언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데이빗이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텐트는 왜? 그것이 제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응, 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왕권의 덧은 없습니다. 예, 텐트는 매우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텐트는 매우 비영구적입니다.

아모스가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8장 반 동안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의 마지막 여섯, 일곱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수리되고 회복되어 백성들의 지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인간의 덧이나 능력이 아닌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로 선택한 곳이 궁전이 아니라 헛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표징이 될 것은 그의 왕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성격이겠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6절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부심. 자부심.

또 왔습니다. 우리는 이 66개 장을 통해 이에 대해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일 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은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질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당신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단지 현실일 뿐입니다. 내가 거기 뒤쪽의 유리를 주먹으로 부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유리가 깨져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그 결과는 매우 예측 가능합니다.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울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7절,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게 하라. 모두가 통곡하고, 애통하고, 완전히 슬퍼하도록 하십시오.

8절, 9절, 10절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나요? 포도원, 그래, 그래. 포도나무, 그게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근동 세계에서 와인은 기쁨과 웃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술에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좋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겨울 내내 마실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은 마실 수 없으니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실 포도주가 있게 되어 즐겁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특히 8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셀까지 닿은 그 가지를 꺾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새싹은 해외로 퍼져 바다 위로 지나갔다.

아마도 사해(Dead Se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마치 포도나무가 뺏어 뺏어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야셀이 우는 것과 같이 운다.

헤스본과 엘리엘라야 내가 눈물로 너를 적셨 도다 이는 너의 여름 실과와 수확으로 말미암아 외침이 그쳤음이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포도원에는 노래도 없고 환호도 없고 틀 안에서 포도주를 밟는 사람도 없느니라.

나는 외침을 그쳤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탄식하는도다. 좀 흥미롭네요.

모압 때문에 내 배가 으르렁거린다. Kier Hareseth 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자아.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대명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대명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9, 10, 11에서 지배적인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사람. 나는 눈물을 흘린다.

나는 눈물로 당신을 적십니다. 나는 외침을 그쳤다. 내 내면이 신음한다.

나의 가장 깊은 자아. 이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각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의 선택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내 생각엔 그게 다인 것 같아.

자, 왜요? 이사야라고 해보자. 이사야는 왜 모압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섹션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곳은 모압입니다.

그런 애도일 수도 있겠네요. 모압이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는 변합니다. 나는 그것이 유다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압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다른 생각은 없나요? 아직도 이사야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응.

응. 네, 제 생각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으로서 말하기.

글쎄요,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유다와 모압 사이에 존재했던 이러한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에돔을 위해 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으로 더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대한 고뇌를 느낀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 그것이 신이고 하나의 암시라면, 나는 외침에 종지부를 찍었다.

글쎄요, 그건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외침을 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근친상간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롯을 통한 연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신 것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예.

응. 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돔과 모압 모두, 모세는 그들의 땅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모압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돌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때에 에돔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수세기, 수세기, 수세기의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땅에 피가 흘릴까 봐 발을 들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2절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15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소용 없어.

그건 소용 없어.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는 쓸모없는 신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인도에서는 그 끔찍하고 끔찍한 불이 나서 위안을 찾아 신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갈로르의 거리를 걷다가 작은 작업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가 아이돌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코끼리 여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헛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나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13절과 14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조금 신비 롭습니다. 이 역본에는 이것이 과거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썬요, 과거에는 이 번역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면 마치 고용된 노동자의 해와 같다. 그 문구는 책에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을 맺은 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3년 동안 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품꾼이 며칠인지 세심하게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3년,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모압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영광, 당신의 영광, 어느 나라의 영광이든지.

어떤 통치자의 영광도 태양에 비하면 성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됩니다. 3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주장하는 열쇠 중 하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열쇠입니다. 그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글썬요. 별자리가 아닙니다. 삼 년.

모압은 사라졌습니다. 글썬,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끝없는 순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밖에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라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찰은. 4분이 지났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감옥의 날 이스라엘에는 많은 동맹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맹이 많지 않죠?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아니.

다른 건 없나요? 유엔에서 나가세요. 글썄요, 제 생각엔 그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일대일 동등성을 찾고 싶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금지령은 교회에 있어서 큰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1920년에도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국가에 기독교 도덕을 강요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하의 질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인류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 브로커들의 주머니 속에 있던 미국에서 시민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앞으로 50년 안에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시민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교도 국가에 기독교 도덕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금지는 페미니즘의 첫 번째 큰 성공이었습니다. 금지령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캐리 네이션(Cary Nation), 훌륭한 기독교 여성, 깊이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 여성들.

하지만 나에게는 '만약에 어떨까?'라는 질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금지령이 이 나라에서 폭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꽤 잘 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질문에 대한 긴 답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대일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다음주에 보자.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8회기입니다.